

11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삭개오

Chapter

눅 19:1~10, 시 63:1~4

찬양 40장 (사슴이 시냇물을), 찬양 72장 (주께 가오니)

오늘 배울



말씀

1.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음을 압니다.
2. 주님은 나의 외모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나의 중심을 보심을 압니다.

마음 열기



1. 두 사람 모두 똑같이 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물을 원하는 마음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적어 봅시다.

그림 1)

그림 2)

2. 내가 주님께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이해하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할까요? 주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죄악의 도시인 예리고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의 장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부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되었으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바탕에는 삭개오의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리고 성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삭개오는 예수님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키가 작았고 인파는 많았기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문제와 외부의 문제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뵙기를 갈망했기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앞질러 달려갔고, 그 길가에 있는 큰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위신이나 체면도,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도, 키가 작다는 신체적 약점도 예수님 보기를 갈망하는 삭개오에게는 장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이름을 친히 부르시고, 그의 집을 방문하셨으며,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삭개오는 변화되었으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공포하셨습니다. 삭개오의 갈망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구원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공과말씀정리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 7:7)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it will be opened to you (Mt 7:7)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눅 5:18~20)

(마 15:21~28)

(잠 8:17, 34~35)

2. 시편 42편 1~2절과 시편 63편 1~2절을 읽고 기자가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어떤 마음인지 생각하고 기록해 봅시다.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내가 구원받았을 때를 기억해 보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비교하면서 빈칸을 채워 봅시다.

| 구분 | 삭개오 | 나 |
|----------------------|---|---|
|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 달려가 뽕나무에 올라감 | |
|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 급히 내려왔음 | |
| 예수님이 집에 머무르겠다고 하셨을 때 | 즐거워하며 영접함 | |
|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토색한 것은 네 배로 갚겠다고 결심함 | |

2. 구원받을 때 내가 간구했던 것만큼이나 구원받은 이후 간절하게 간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한 간구였습니까? 그것을 얻었습니까?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주님! 제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소서.



우리들의 이야기

인생의 첫 단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해도 첫 단추 하나를 잘못 끼우면 옷을 입은 모양새가 달라집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첫 단추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과 같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의 첫 단추가 바로 끼워집니다.

인생의 첫 단추를 잘 끼웠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소녀의 갈망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근처의 시골 마을에는 그곳과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큰 교회당 하나가 있습니다. 이 교회당은 ‘수잔’이라는 소녀를 기념하여 지어졌습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본래 교회당이 없던 이 마을에 교회당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수잔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아주 먼 도시까지 나가서 주일 말씀을 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만 했기에 주님께 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을에 교회당을 주셔서 내 친구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주님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것이 이 소녀의 꿈이었고, 갈망이었습니다. 수잔은 매일 이 기도를 주님께 드렸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얼마 후 수잔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소녀의 장례를 준비하던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병상 밑에서 그녀의 간절한 기도와 열망이 담긴 편지 한 장과 그 속에 담긴 마지막 현금 5달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잔의 이야기는 마을 주민과 미국 전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앞을 다투어 현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수잔을 기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크고 아름다운 교회당이 이 마을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한 소녀의 작은 기도, 그리고 5달러짜리 지폐 하나가 가져온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작고 무능력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구하고 또 구한다면 주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를 갈망하고 기도합니다.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